송○○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

1. 프로필

▣ **연수원 ○○기(상세는 별첨 자료 참조)**

2. 성향

▣ **전체 사법제도, 인사시스템 등 관심 多**

● 특히,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심 ⇨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

- 2012. 7. **김○○ 대법관 임명 제청의 철회를 요구**하는 글 게시

- 2014. 8. 권○○ 전 차장의 대법관 제청 당시, **최고엘리트 법관이 아닌 인권 등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법조인에게 문호를 개방**했으면 한다는 글 게시

- 2015. 1.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**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**는 내용의 글 게시

▣ **정세판단에 밝은 전략가형**

● 속칭 **'낄 때, 안낄 때' 판단**이 밝아,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, 그 반대의 경우에는 침묵

● 동기인 유○○ 판사는 현장의 필드 플레이어 성격이 강하다면, 송 판사는 배후 **기획, 정리, 분석, 전략수립** 등에 더 밝음

● **우리법 연구회 회원이었다가**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자 **우리법 연구회 탈퇴함**

▣ **집행부에 대한 불신 및 의혹 多**

● ○○지법 내 사무분담 편성시에도, 사무분담 하나하나에도 의혹제기

▣ **선동가,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**

● 이슈 발생시 주변 법관들을 선동하는 기질 다분

3. 자유게시판 게시글

▣ 2009. 3. '사법부를 흔드는 두가지 손' (촛불재판 의혹 규명 촉구)

- "의혹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인지, 존재한다면 (서울중앙지법) 수석부장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, (서울중앙지법) 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"

▣ 2010. 1. 27. '정기인사에 앞서 법원장님들께 올리는 글'

- "(최근 사의를 표명한 법원장님들이) **사의를 거둬주시고 고법의 재판장으로 돌아가 주시면** 안 되겠느냐"며 일정 기간 법원장을 지낸 뒤에는 다시 고법 부장으로 돌아가 재판을 맡다 퇴임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

- "대법관 제청도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고법 재판장으로 근무하시는 법관님들 중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"며 "그렇게만 되면 법원장님들이 사법부 독립을 흐리는 일체의 세력, 그들의 날선 비난에 단호히 맞서 후배 법관들을 지켜주시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느냐"

▣ 2011. 11. 29. 최○○ 부장판사의 FTA 강행처리 비판 글 게시 이유 윤리위 회부에 대해 비판 글 게시

- "최○○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**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**이 내려진다면 많은 판사들은 더 이상 **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**"

▣ 2012. 7. 24. "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하여" (김○○ 대법관 임명제청 철회 요구)

- "후임 대법관의 임명을 위한 청문회를 거친 국회에서 김○○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"며 "저는

사법부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 사유만으로도 **김○○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**고 생각한다"

- "올해 초 법원은 **모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두고 커다란 홍역**을 겪었다.", "일선 판사 한 명의 재임용에 대해 유독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던 대법원이 현재 상황에서 왜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."

▣ 2014. 8. 권○○ 당시 차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한 글

- 2003년 '제4차 사법파동'은 법원 내부의 자발적인 역량들이 모여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거쳐 사법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으로 평가될 것"
- **"다음 번 대법관 제청 때는 최고엘리트 법관이 아닌 인권이나 노동,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법조인에게 문호**를 개방했으면 한다. 법원 내·외부의 이런 요청이 적극 반영되기를 호소한다"

▣ 2015. 1. 15. "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한 의견"

- "이번 추천 결과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했던 2011년 취임사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인지 냉철한 자성과 반추가 필요하다"며 초심을 강조, **대법관 후보 제청을 위해 법원 안팎의 여론을 다시 수렴할 것을 요구**